

한 제1회 한중사립미술관 국제포럼 참석차 방한해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직후인 3월 초 들려온 삼성미술관 리움의 개점휴업도 사드 이상으로 국내 미술계와 시장에 충격을 줬다. 삼성미술관 홍라희 관장과 홍라영 총괄부관장이 사퇴했고, 4~8월 김환기 회고전과 9~11월 서예전 '필(筆)과 의(意) 한국 전통서예의 미(美)도' 취소됐다.

삼성미술관 리움은 국보·보물급 고미술과 근·현대 한국 미술, 세계적인 현대 미술을 아우르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시공간이다. 흥 관장 또한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수년간 영향력 1위를 지킨 '큰 손'이라는 점에서 업계나 시장에서 느끼는 당혹감은 컸다. 흥 관장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 '푸른색 전면점화 65억' 김환기 최고가...단색화 열풍은 주춤

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김환기(1913~1974년) 작품이 2017년에도 국내 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김환기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미국 뉴욕에서 그린 푸른색 대형 전면점화인 '고요(Tranquillity) 5-IV-73 #310'은 4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케이옥션 경매에서 65억5천만 원에 낙찰됐다. 이 작품은 김환기를 대표하는 푸른색 계열로 세로 2m 60cm 가로 2m 캔버스를 뒤덮은 수천 개의 푸른 점이 별무리를 연상시킨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하얀 선으로 문을 냈다.



▲ 4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K옥션에서 열린 4월 경매에 김환기 작가의 '고요(Tranquillity) 5-IV-73 #310'이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경신한 65억5천만 원에 낙찰됐다.

작가는 스페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숨지고 이를 뒤인 1973년 4월 10일 일기에서 "(작업) 3분의 2 끝났다. 마지막 막음은 완전히 말린 다음에 하자. 피카소 옹 떠난 후 이렇게도 적막감이 올라."라고 적기도 했다.

이전까지 국내 미술품 최고가는 2016년 11월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팔린 김환기의 노란색 전면점화 '12-V-70 #172'(63억2천600만원·4천150만 홍콩 달러)였다. 미술 시장에서는 2015년 10월 김환기의 푸른색 전면점화인 '19-VII-71 #209'가 박수근의 '빨래터'(45억2천만원)를 제치고 47억2천만 원에 팔린 뒤 2년 넘게 김환기가 김환기를 계속 넘어서는 현상이 이어졌다.

국내 미술품의 최고 경매가를 기록한 '고요(Tranquillity) 5-IV-73 #310'부터 '12-V-70 #172', '무제 27-VII-72 #228'(54억원),

'무제'(48억6천만원), '19-VII-71 #209'까지 모두 김환기 작품이다.

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가 2017년 12월 말 발표한 '2017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연말결산'에 따르면 김환기 작품 낙찰총액은 253억9천800만 원으로 2016년 415억원보다 많이 줄었다.

김환기의 최고가 경신은 이어지고 있지만, 2013년부터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의 급성장을 주도했던 단색화 열풍은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다.

단색 화가로 분류되는 정상화, 박서보 등의 낙찰총액도 2016년보다 50억원 정도 감소했다. 이를 두고 단기간에 급등했던 단색화가 시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반기에는 단색화와 함께 양대 사조로 꼽히는 민중미술 작가들의 대형 전시가 이어지면서 주목받았다. 촛불집회를 주제로 한 임옥상의 대작 '광장에, 서'는 가나아트센터 전시 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본관 벽에 걸리면서 화제를 모았다. 임옥상, 강요배, 손장섭, 박불똥 등의 작품을 통해 1980년대 이래 한국 리얼리즘 미술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전시도 성곡미술관에서 열렸다.

2017년 말 이적표현물로 몰려 30년간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됐던 신학철 그림 '모내기'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위탁 보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미술계 최대 위작 시비에 휘말린 '미인도'는 2017년에도 계속 다툼의 대상이 됐다. 검찰이 '미인도'가 천경자(1924~2015년) 작품이라고 결론 낸 데 반발해 유족이 '검찰 처분이 옳은지 판단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미인도'가 위작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모은 책 '천경자 코드'를 내는 등 반발을 이어갔다.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있던 '미인도'는 과천관에서 열린 '소장품 전: 균열'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 음악

### 대중가요

#### ■ 개요

2017년 가요계는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워너원의 활약이 두드러진 가운데, 사이니 종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대마초 흡연과 음주운전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중국 활동이 막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국에도 해외에서 뚜렷한 발자국을 남긴 방탄소년단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트와이스는 사이 이후 침체했던 K팝 한류의 불씨를 되살렸다.

앨범 시장에서는 방탄소년단이 가온차트 집계로 판매량 약 150만 장을 기록했고, 음원 시장에서는 1억 스트리밍 돌파 곡이 12곡 나왔다.

2016년부터 이어진 2세대 아이돌 그룹의 해체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괴물 신인' 워너원이 신드롬을 일으켰다. 중견 가수 윤종신이 '솔니'로 하반기 음원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 ■ 해외서 K팝 견인한 방탄소년단·트와이스…워너원 신드롬

방탄소년단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거대 팬덤을 이끌며 잇따라 새 기록을 썼다. 이들이 직접 만든 음악은 국적과 인종을 넘어 동시대 청춘의 이야기를 담아 내며 공감을 이끌었고, 절도 있는 퍼포먼스는 완성형 아이돌의 모습을 보여줬다.

9월 발표한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허'(LOVE YOURSELF 承-Her)는 판매량 150만 장이란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팝의 성지인 미국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러브 유어셀프 승-허는 빌보드 메인 앨범 순위인 '빌보드 200'에서 7위에 오르며 한국 가수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11월 공개한 '마이크 드롭'(MIC Drop)의 리믹스 버전도 빌보드 메인 싱글 순위인 '핫 100'에 28위로 처음 진입해 K팝 그룹 최고 기록을 냈다.

트와이스는 일본에서 소녀시대와 카라 이후 K팝 걸그룹의 인기를 재점화했다. 일본인 멤버가 셋(사나, 모모, 미나)인 트와이스의 활약상은 12월 31일 방송된 NHK 연말 가요 축제 '홍백가합전'에 한국 가수로는 6년 만에 초대된 것만으로도 입증됐다. 이들은 6월 발표한 일본 데뷔 베스트앨범 '#트와이스'로 판매량 27만 장, 10월 선보인 일본 첫 싱글 '원 모어 타임'(One More Time)으로 판매량 25만 장을 돌파해 일본레코드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미디어가 낳은 '괴물 신인' 워너원의 등장이 화제였다.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탄생한 워너원은 방탄소년단과 엑소를 이을 팀으로 불리며 8월 데뷔 공연을 2만 석 규모의 고척스카이돔에서 열었다. 8월 출시한 데뷔 앨범 '1X1=(TO BE ONE)'과 11월 발표한 리패키지 앨범 '1-1=0(NOTHING WITHOUT YOU)'의 총판매량은 100만 장을 넘겼다.

방탄소년단과 엑소, 워너원 등 앨범 판매량에서 보이그룹이 두드러졌다면 음원 시장에서는 에일리, 아이유, 트와이스, 볼빨간사춘기 등 여풍이 거셌다. 음원 시장에서는 스트리밍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가온차트 결산에서 1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곡은 2016년보다 10곡이나 많은 12곡으로 집계됐다.



▲ 그룹 워너원이 3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두 번째 미니앨범 '0+1=1(I PROMISE YOU)' 발매 기념 기자회견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 2세대 아이돌 해체 계속…윤종신·나훈아, 중견의 저력

2세대 아이돌 그룹의 해체는 계속됐다. 원더걸스가 1월, 씨스타가 6월 해체됐다. 제국의아이들은 1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되며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멤버 변화를 겪은 팀들도 있었다. 티아라는 5월 보람과 소연이 탈퇴하면서 4인조로 재편됐고, 남은 이들 역시 소속사와 계약이 12월 마무리되면서 팀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AOA의 초아가 6월 탈퇴했으며, 데뷔 10주년을 맞은 소녀시대는 티파니, 수영, 서현이 10월 SM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아이돌 시장의 세대교체 외중에 중견 가수와 새 얼굴이 '차트 역주행'을 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6월 발표된 윤종신의 '줄니'가 8월 음원차트 정상을 휩쓴 뒤 가을까지 '롱런'하며 하반기 발라드 흐름을 이끌었다. 윤종신이 중견 가수는 차트 흥행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깬다면, 남성듀오 멜로망스는 7월 공개한 '선물'이 차트 역주행을 하며 10월 정상까지 찍는 선전으로 인디 뮤지션의 저력을 보여줬다.

2006년 데뷔 40주년 공연을 끝으로 침체했던 나훈아가 7월 새 앨범을 냈다. 11년 만의 컴백 공연은 중장년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11~12월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열린 공연은 총 3만1천500장의 표가 10분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 ■ 김태희·비·문희준-소울 등 결혼…종현 사망 등 끊이지 않은 사건·사고

5년간의 교제 끝에 1월 결혼한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가 10월 딸을 얻어 부모가 됐다. 1·2세대 아이돌 가수들도 잇달아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룹 H.O.T 출신 문희준이 2월 크레용팝의 소울과 결혼해 '아이돌 1호 부부'가 됐으며, 신화의 에릭이 7월 배우 나혜미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빅뱅의 태양은 배우 민효린과 2018년 2월 결혼한다고 발표했다.

각종 사건·사고와 갑작스러운 비보도 연이어 터져 나왔다. 의무 경찰로 복무 중이던 빅뱅의 탑은 입대 전 대마초를 핀 사실이 6월 알려지며 충격을 줬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의무경찰에서 직위 해제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다.

브라운아이즈걸스의 가인은 6월 남자 친구이던 배우 주지훈의 지인이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심센치의 윤철중과 프로듀서 쿠시 역시 마약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김현중이 3월, 리쌍의 길이가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이던 슈퍼주니어 강인은 11월 음주 폭행 시비에 휘말리며 팬들의 뭇매를 맞았다. 소녀시대 태연은 11월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추돌사고를 내기도 했다.

샤이니 온유는 8월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은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자신의 가족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한 소식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에이핑크는 6월 한 남성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개월 동안 출연하는 행사장

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이어져 고통을 받았다.

가장 충격적인 비보는 12월 18일 사이니 중현의 사망이었다. 중현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져 국내외 팬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포크계의 대부’ 조동진도 방광암 투병 중 8월 자택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후배들과의 공연을 20여 일 앞둔 시점이어서 동료와 팬들의 안타까움은 더 컸다. 가수 김혜림의 어머니이며 1950~1960년대를 풍미한 가수 겸 배우 나애심도 12월 별세했다.

## 클래식 · 국악

### ■ 개요

2017년 클래식 음악계는 젊은 스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이어 미국 최고 권위의 피아노 콩쿠르인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는 쾌거를 거둔 선우예권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드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순수 예술계에도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의 여파가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개선됐다.

### ■ 조성진·선우예권 등 ‘K클래식’ 활짝

‘K클래식’이라 칭할 만하다. 대한민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2017년에도 유명 국제 콩쿠르를 휩쓸었다. 이들에게 세계 유명 공연장·오케스트라의 초청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스타’ 탄생의 기대를 한껏 키웠다.

그 선두엔 단연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 조성진이 섰다. 그의 행보는 한국 클래식 역사의 새 길이 됐다. 그의 인기는 클래식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8월 조성진이 협연자로 참여한 롯데콘서트홀 개관 1주년 기념 공연은 티켓을 판매한 지 1분 만에 매진되는 등 출연하는 공연마다 협연과 독주를 가리지 않고 ‘눈 깜짝할 새’ 티켓이 다 팔려나갔다.

굵직굵직한 경력도 쌓아나갔다. 사이먼 래틀이 이끄는 세계 최강 악단 베를린 필하모닉과 11월 처음으로 협연하며 또 한번의 큰 도약을 했다. 협연자 선정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베를린 필에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세계무대에서의 음악적 위치를 기능케 한다.

앞서 2월에는 클래식계 ‘꿈의 무대’로 통하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마쳤다. 아울러 2년 뒤인 2019년 1월 카네기홀 기획 공연에 재초청된 상태다.

조성진과 함께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K클래식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했다. 선우예권은 6월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 콩쿠르는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차이콥스키·쇼팽·퀸 엘리자베스에 견줄 만한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다. 콩쿠르 우승자에게 쏟아지는 관심 속에 그의 2018년 연주회는 벌써 100여 회가 잡힌 상태며 향후 약 3년간 일정표가 이미 빼곡하다.

이 밖에도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9월 독일 최고 권위의 음악 콩쿠르인 ‘제66회 뮌헨 ARD 국제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으며, 피아니스트 홍민수는 10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열린 ‘2017 제11회 프란츠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에 오르며 굵직한 콩쿠르를 모두 휩쓸었다.

국악계에서도 국립창극단 간판스타 김준수 등을 중심으로 젊은 바람이 불었다. 김준수는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국악이란 장르에도 불구하고 팬클럽을 이끌고 다녔다.

‘국악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유태평양도 차세대 소리꾼으로 자리매김했다.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영 만찬장에서 그가 부른 ‘비나리’를 듣고 가사 내용을 묻는 등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

### ■ 사드로 순수예술 공연 잇따라 취소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중국 공연이 돌연 불발되며 한한령이 순수문화예술에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한류 스타나 한중 합작 드라마·영화분야로 시작된 중국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보복 조치가 뮤지컬과 클래식, 무용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졌다.

우선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조수미는 광저우·베이징·상하이로 이어지는 중국 순회공연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발급되지 않았다. 조수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그들의 초청으로 2년 전부터 준비한 공연인데 이유도 모른 채 취소됐다. 국가 간 갈등이 순수 문화예술에까지 번지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3월 예정됐던 중국 구이양(貴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비자 발급 거부로 취소됐다. 김지영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는 4월 중국 상하이발레단의 ‘백조의 호수’에 주역으로 서는 것을 협의 중이었지만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공연하기 어렵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한중 관계 복원 움직임이 고개를 든 하반기부터는 교류가 재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1956년 설립된 중국 유일의 국립 교향악단인 차이나 내셔널 심포니가 8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한중수교 25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었다. 클래식계 교류 재개에 맞춰 한국 창작 뮤지컬 ‘빨래’와 ‘마이 버킷리스트’ 등이 중국 현지 공연을 하기도 했다.

### ■ 청탁금지법에도 대형 오케스트라 ‘성찬’…티켓 값 거품 빼기 시도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았음에도 대형 오케스트라의 내한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공연일보다 1~2년 전에 라인업을 하는 공연계 특성상 갑작스러운 ‘공연 절벽’이 발생하진 않았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닉,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크 필하모닉,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등 해외 유명 악단들이 앞다퉀 한국을 방문했다. 세계 오페라계 ‘디바’로 꼽히는 안나 네투렐

코, 안젤라 케오르규, 디아나 담라우가 차례로 한국 무대에 서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제작비용이 워낙 높은 클래식 공연 특성상 청탁금지법으로 기업 협찬이 줄면 대형 클래식 공연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실제 한국메세나협회가 3~5월 4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으로 2016년 하반기 메세나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23.8%가 “관련 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공연 기획사들은 제작비를 낮추고 유료 티켓 판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일반 관객의 지갑을 열기 위해 대중적 레퍼토리(연주곡)를 선정하거나 SNS를 활용한 관객과의 직접 소통 확대 등이 고려됐다. 특히 핀란드 명문 악단 라티 심포니의 경우 티켓 값을 최고 4만원대로 책정해 이목을 끌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대형 오케스트라 공연이 이 정도 가격으로 나온 것은 드문 일이다.

## 연극·뮤지컬

### ■ 개요

2016년 불거진 ‘블랙리스트’ 파문은 2017년에도 공연계, 특히 연극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블랙리스트의 실상이 드러나며 분노한 연극인들은 연극인회의 등을 결성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고도고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령)은 한동안 공연 시장에도 찬바람을 불러왔다.

관객이 적극적으로 공연에 참여하는 ‘이머시브’ 공연이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했고, 뮤지컬 ‘켓츠’는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

50여 년간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스크린,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선 굵은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윤소정 씨가 6월 세상을 떠났고, 12월에는 ‘1세대 무대미술가’ 이병복 씨가 별세했다.

### ■ 연극인들, 블랙리스트에 적극적인 발언 나서

연극인들은 1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극장인 ‘광장극장 블랙텐트’를 세우고 두 달



▲ 4월 18일 밤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블랙타파) 발족식에서 공연이 열리고 있다. 이날 극단 등 108 곳의 연극 관련 단체와 5백여 명의 연극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간 운영했다. 1월 10일 개관한 블랙텐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기 전날인 3월 9일까지 총 72건의 공연이 이뤄졌다.

연극인들은 또 블랙리스트 문제 진상규명과 문화예술제도의 공공성 확립을 요구하는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 회의’(블랙타파)를 결성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사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는 등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했다.

### ■ 세월호 참사·메르스·청탁금지법 이어 한한령으로 타격

2015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가적 애도 분위기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2017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공연예술계는 2017년 상반기에 한한령으로 다시 타격을 입었다.

대표적인 관광공연 상품이었던 난버벌(비언어) 퍼포먼스 ‘난타’는 국내 전용관 중 한 곳인 충정로 극장의 운영을 4월 이후 중단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 위주로 운영됐던 충정로 극장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2017년 4월부터 임시 휴관 상태였다가 결국 폐관을 결정했다.

미술 난버벌 퍼포먼스 ‘오리지널 드로잉쇼’도 한한령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했고 타악 퍼포먼스 ‘드럼캣’도 2월 말 공연을 종료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스터 액트’에 동양인 최초로 캐스팅된 한국 뮤지컬 배우 김소향이 아시아 투어 중 중국 공연에서 빠지는 일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6월 창작 뮤지컬 ‘빨래’가 중국에서 공연되는 등 한한령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 ■ 뮤지컬 ‘켓츠’ 관객 200만명 돌파··이머시브 공연 새로운 트렌드

뮤지컬 ‘켓츠’가 12월 한국 뮤지컬 사상 첫 200만 관객 돌파 기록을 세웠다. 2007년 3월 뮤지컬 ‘명성황후’가 100만 관객을 돌파한 이후 10년 만에 200만 관객 기록을 세운 것이다. ‘켓츠’의 인기 비결은 성별이나 연령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관객층 등이 꼽힌다.

관객이 공연의 일부로 참여하는 ‘이머시브’(Immersive) 공연도 2017년 공연 시장의 특징 중 하나였다. 서울예술단의 ‘꾼빠이, 이상’, 정해진 대본 없이 관객들이 현장에서 정한 제목과 주인공, 상황 등으로 매회 다른 구조의 이야기를 만드는 뮤지컬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관객들이 극장을 탐방하며 즉석 연기를 하는 관객참여형 연극 ‘내일 공연인데 어떡하지’ 등이 이머시브 공연으로 주목받았다.

공연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임금 미지급도 다시 논란이 됐다. 6월에는 뮤지컬 ‘햄릿’이 임금 체납으로 인한 스태프와의 갈등으로 두 차례나 공연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전 공연에서 본 손실을 다음 공연에서 메우거나 다음 공연을 담보로 이전 공연에 투자를 받는 ‘돌려막기’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